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8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39:7-12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29장(새찬송29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31번(새찬송61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저희를 주님께 드리오니 공활을 베푸사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 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뜻만이 저희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경건하지 못한 것들과 탐욕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알게 해주신 인생의 참 목적과 의미가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되 즐거운 마음으로 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고난이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야고보서 3:1-12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성도의 거룩한 언어”

- 봉 헌(offering) 6장(새찬송2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216장(새찬송 424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신성화·박인숙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2. 공천위원회가 다음 주일 친교시간에 있습니다.
 - 김희상 권사, 송현진집사, 신성화집사 이진국권사, 이춘희집사
3.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번 주부터 개역개정판 성경과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기존판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새로운 성경, 찬송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명과 가정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 인적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세계 각국에 이상 기후와 전쟁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야고보서 3:1-12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 야고보 사도는 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합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까?(1-4절)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무언가 가르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사도는 혀가 가진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성도의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5-12절) 나는 말할 때마다 나의 생각과 의도를 주의하고 있습니까?

❖ 인간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큰 영향력을 지닌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던지는 말을 통해 그의 영적인 속성이 함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통해 상대방에 마음에 품은 의도와 생각을 받기 때문에 말은 우리의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말은 역기능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폭언으로 이어져, 서로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속사람이 거듭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바로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로 관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로 인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며 소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